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12월 13일(금)
--(윤력 11월 13일)--
Пятница
13 декабря 2024 г.
№ 48 (1211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2월 12일은 러시아 헌법의 날이다.

(촬영 이예식 기자)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러시아 연방 헌법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1993년 12월12일 전체 국민투표로 채택된 기본 법은 국가를 강화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해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헌법의 기본 조항들은 법치주의, 인권, 모성과 아동과 가족 보호, 조국의 자주권, 노동에 대한 존중 등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담은 법으로 단결된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우리의 자녀와 그 후손들을 위한 복된 미래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 전투가 진행되는 전장에서나 평화로운 후방에서 시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갑시다.

동향인 여러분, 헌법의 날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번영, 사할린주와 나아가 국가 전체의 행복을 위한 일터에서 새로운 성공을 기원합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 2024년 <파견 의사/파견 준의사>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실시

<지방파견 의사/지방파견 준의사>연방 프로그램이 올해 사할린 주에 9명의 의사와 4명의 간호사, 총 13명의 새로운 의료진을 유치하도록 도왔다. 이는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과 의료 종사자에게 유리한 근무조건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 이 프로그램 실시는 지역 의료 분야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핵심적 방안들 중 하나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사할린 지역에서는 사할린에 파견될 준비가 된 의료계 종사자를 위한 일련의 지원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사할린 지역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용도 지급하고 있고,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후속 보상금이 제공되는 주택 임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의 배우자에게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자녀의 유치원, 학교, 스포츠 클럽, 동아리에 들어가도록 돕고 있다. 나는 의료계 종사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해결책을 채택하고, 개별적으로도 이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을 순조로이 해결하도록 했다."

고 주지사가 설명했다.

<젠스키 독토르(지방파견 의사)/젠스키 펠드셰르(지방파견 준의사)>프로그램에 따라 작은 마을이나 주거지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는 의료계 종사자들은 2백만 루블리 규모의 지원을 받으며, 주민 인구가 5만 이하의 소도시 의료기관에 취업한 의료인들은 1백만 루블리의 지원을 받는다.

2012년부터 <지방파견 의사/지방파견 준의사>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85명의 의사와 19명의 준의사가 사할린주 의료기관에 임용되었다. 이외에도 사할린 지역에서는 지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정책 덕에 매해 국립의료기관에 의료 요원들이 채워지고 있다.

올 10월에 사할린주의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계 종사자와 의사의 수는 2,842명이었고, 이에 비해 2023년 같은 시기에 2,622명이었다.

(사할린 주정부 자료에서)

단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직통전화, 12월19일에 진행

12월 19일(목) 모스크바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 하는 올해 총결' 프로그램이 실시간 방영된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대통령은 지나가는 한 해를 총결해보며, 기자들과 전국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의 모스크바 푸틴 루(moskva-putinu.ru)사이트와 전화0-40-40에 문자 메시지로, 또는 전화 (8-800-200-40-40)를 통해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특별 앱을 통해 접속된다.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글이나 영상 문외는 '브콘탁테(ВКонтакте)', '오드노클라스니키(Одноклассник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보낼 수 있으며, 질문 접수는 12월 8일 0시부터 12월 19일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실행된다.

사할린, 조국수호자공원 개장

12월 9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조국 영웅들의 날을 기념하여 조국수호자소공원 개장이 엄숙한 의식 속에 거행되었다. 중대한 행사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참전용사들의 공적을 기억하며, 그들을 모범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하겠습니다. 조국 영웅들의 날과 조국영웅공원 개장의 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새로운 사회적 공간으로서 조국수호자소공원은 '아방가르드'와 '유럽 주택' 주택단지 부근 고리키 거리와 포그라니츠나야 거리의 북서쪽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가림막과 조명 설치가 완료되었고, 보행로 연결망이 조성되었으며, '4개 시대의 전쟁들'이 구성돼 설치되었고, 나무와 관목들을 심고, 또한 활동적인 휴식을 위한 스포츠 공간도 확보되었다.

사할린, 수산물 25만4천톤 수출

2024년 12월 5일 기준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사할린주에서 생산 25만4천 톤이 수출되어 금액은 5억7,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사할린주 수산업부가 전했다.

수출 어종은 대부분 명태가 10만8000톤(9천800만 달러)수출됐고, 명태수 수출량은 1만 톤(2천100만 달러)에 달했다.

가공되지 않은 해삼류 수출량은 1천 톤(9백만 달러)에 달하며, 대구는 6천800톤(1,800만 달러) 수출됐다

2025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에 관한 설명회 개최

12월 18일(수) 오후 3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주유즈노사할린스크총장소 주최하에 2025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 설명회가 개최된다고 주유즈노사할린스크총장소가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곧 마무리!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곧 마무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지역의 소비자 덕에 성장해온 '그린 팔라스'가 사할린 사회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다"

25년 전 사할린에 정착한 권운호 대표이사

사할린에 정착하여 20-30년 살고 계시는 한국 교민은 많지 않다. 그중 한 분은 젊은 나이에 사할린에 와서 사업을 추진해 현재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는 '그린 팔라스' 주택건설개발업체인 유한책임회사 권운호 대표이사다.

새고려신문사가 어려울 때면 늘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셨던 분으로 배순신 기자가 최근 권운호(52세) 사장의 근황을 알아보았다.

- 대표님께서 사할린에 오신 지도 수십 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전공하셨고, 사할린에는 어떻게, 몇 년도에 오셨는지요?

- 안녕하세요. 우선 사할린 동포분들의 살아있는 역사인 새고려신문의 지면에 저의 이야기를 담게 되어 너무 영광이며 배 빅토리아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1999년 9월 당시 사할린항공 공사의 한국대표부 파견직원으로서 처음 사할린에 오게 되었죠.

전공은 관광영어 통역입니다. 대학 재학 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년간 교환 학생으로 러시아어를 공부한 것이 계기가 되어 러시아와 관련된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새고려신문에도 장기간 광고 지면을 내기도 했던 '사트엘리트'라는

여행사에서 항공권 발권, 투어 패키지 판매, 비자발급 대행업무등의 총괄 매니저로 일하면서 사할린 항공의 한국 운항 출·도착편의 대한민국 승객들을 위해 통역서비스도 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대한민국에 300명 정도 있는 '러시아어 관광 통역 안내사'이기도 합니다.

- 관광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대표님께서 사할린 주민들은 한국식 주택건설을 시작해 처음 알려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그린 팔라스-1' 주거단지 건설공사부터 '그린 팔라스-2', '그린 팔라스-3' 등 지속적인 건설사업에 총 매니저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에 힘든 점과 난관, 보람도 있으시겠지요?

- 예, 맞습니다. '그린 팔라스'라는 브랜드로 건축 분양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이니 벌써 16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경험치 못한 새로운 사업 분야이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들어준 성장통이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우리가 지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주민 분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단지라고 이야기 해주실 때입니다.

- 현재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파르후트지노브 거리에



288세대와 지하주차장 121개소를 갖춘 '그린 팔라스-4' 새로운 주거단지 준공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단지 건설부터 사업적으로 독립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사업들에서 취약했던 단열과 방수, 외장 마감 부분들에 더욱 신경을 쓰고, 건축비용도 아끼지 않았기에 사할린에서 최고 품질의 주거 단지임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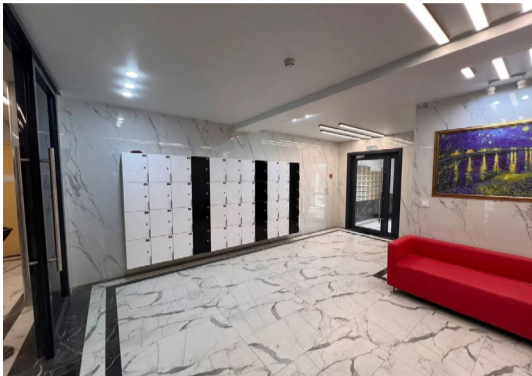
-장기간 대표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항상 사할린동포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돕고자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 계몽, 한민족 문화 보급이라면 항상 후원하려고 하셨고, '아리랑' 장학회의 임원으로서는 활동을 계속하시고, 우리 신문사

에도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포를 향한 따뜻한 도움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기업의 사회공헌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의 소비자 덕에 성장해온 기업이 그 지역사회에 공헌이나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가족 역시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 어르신들이 일군 동포 3,4세대 이기도 하고 저희 '그린 팔라스'의 주요 고객 역시 사할린 동포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들이 좀더 동포사회를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모르겠네요.

- 보통 연말에 사람들은 주로 저물어가는 해가 어떤 해였는지 생각하게 되는데 대표님에게는 올해가 어떤 해이셨습니까?

- 러시아를 비롯한 전세계가 경제성장이 좋지 못한 경기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4번째 '그린 팔라스' 단지 준공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성장의 해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대표님께서 내년에도 사업이 번창하시고, 가정에서는 늘 사랑과 배려, 건강과 행복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새해에는 새고려신문사와 독자 여러분들께도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더욱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그린 팔라스'는 또 다른 새로운 주택보급사업으로 고객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 저 모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행운의 마스코트, 사할린 장애아들이 준비 중

내년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될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대회 준비 따른 대규모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히 장애아들을 포함한 많은 사할린의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할린 지역 교육품질평가센터는 학생스포츠훈련센터의 지원으로 '행운의 마스코트' 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발달 장애아들이 참가하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선수들을 위한 독특한 환영의 마스코트를 만들고 있다. 행운의 마스코트는 사할린 특색의 그림과 마스코트를 담은 엽서 형태이다.

Особенные сахалинцы готовят талисманы удач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игр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дут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м молодежным зимним играм,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с 8 по 14 января. И в этот процесс вовлечены многие островитяне, в том числе, и особенные дет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спортподготовки ребята был запущен проект «Талисман удачи». В нем участвуют ребята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Мальчишки и девчонки создают уникальные приветственные амулеты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Они будут выглядеть в виде открыток с рисунками и талисманами с эндемиком.

사할린 국도에 와이파이 기능 갖춘 '스마트(디지털) 정류장' 설치

사할린주의 리스트웨니츠노예-오호츠크예 도로구간이 디지털화 되는 가운데 와이파이(Wi-Fi) 통신망과 전자기

총전을 위한 유에스비(USB)장치가 설치된 '스마트'정류장이 설치된다고 주 교통부가 전했다

스마트 정류장에는 비상호출 단추와 감시카메라도 설치되었으며, 이 정류장에서 교통편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에어컨과 히터, 안내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다.

사할린주 도로교통사업부의 제1차관인 리 에두아르드는 "리스트웨니츠노예-오호츠크예 도로구간을 따라 사할린의 주민들과 방문객들과 관광객들이 일반 차량으로 사할린의 관광 명소인 라구쉬카 산과 '힘의 장소 웨스토츠크'에코파크, '오호타(수령)' 구역을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새로운 정류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리스트웨니츠노예-오호츠크예 도로구간의 대규모 보수공사가 디지털 정류장 설치에 앞서 이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도로 안전 품질'국가계획의 일환으로 20km의 이 구간 아스팔트 도로는 새로이 개건되었다.

На сахалинской трассе появились «умные» остановки с Wi-Fi

Автодорога Лиственничное – Охотско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ифровизируется: вдоль трассы устанавливают «умные» остановочные павильоны, оборудованные разъемами USB для заряда гаджетов и сетью Wi-Fi.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островном минтрансе. Также в новых остановках предусмотрены кнопки вызова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и видеонаблюдение. Для комфорта ожидания транспорта в павильонах предусмотрены кондиционеры, обогревател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табло. По автодороге Лиственничное – Охотское жители и гости Сахалина в том числе на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добираться до популяр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ест: останца Лягушка, эко-парка «Место силы Восточка», пляжа «Охота», - рассказа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дуард Ри.

Вскоре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строва смогут оценить новинк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установке цифровых остановок предшествовало масштабное обновление самой автодороги Лиственничное – Охотское.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

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был обновлен асфальт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почти 20 км.

사할린 특수군사작전 참전자 자녀들, '추위할아버지' 열차로 새해 여행

12월 7일(토) 추위할아버지의 축제 열차가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의 자녀들을 태우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코르사코브까지 여행을 떠났다.

연말연시 축제의 열차 여행은 주 정부와 사할린주 '조국 수호자' 사할린 지부의 후원으로 '사할린' 여객회사와 러시아 철도청이 공동으로 조직했다.

전 러시아 행사의 일환으로 제드 모로즈(추위할아버지)와 스테니구로츠크(눈소년)가 증기 기관차로 사할린에 도착한 후에 선물로 남겨진 진귀한 증기기관차에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아이들을 태워 동화 같은 열차여행을 하게 했다.

열차의 객차들은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했고, 동화 속 인물들이 아이들을 반기며, 아이들은 경연에도 참가하고, 비눗방울 쇼와 즐거운 음악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여러 행사로 아이들에게 기쁨을 한껏 안겨주었다. 코르사코브에 도착해서는 축제 음식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추위할아버지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어린 아이들에게 어김없이 140개의 새해 축하선물을 선사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детям участников СВО устроили новогоднее путешествие на поезде Деда Мороза

7 декабря, праздничный поезд Деда Мороза совершил путешествие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Корсаков, а в его вагонах ехали дети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редновогоднее торжество на колесах совместно устроили Пассажирская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РЖД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филиала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казочный поезд тянул раритетный паровоз, который оставили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 дар после поездки на остров Деда Мороза и Снегурочки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8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문예콩쿠르 수상작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1위, 김경순, 73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지금 저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경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수수하게 사는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14살에 결혼을 하였고, 저희 아버지는 11살 때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나이에 못 하는 일이 없이 다 잘 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삼베천까지 아주 잘 짜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11살 때 품팔이를 하여 식구를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식구들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들, 삼촌들 그리고 증조 할머니까지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많은 식구들 중에 아버지 혼자 이곳 저곳 다니시며 일하셨고, 혼자 돈을 벌어 오셨기 때문에 가난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노름을 하며, 술만 드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시집을 오셨을 때 시아버지의 연세는 37세이셨고 시어머니의 연세는 33세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본인들은 아이들만 계속 낳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시집 온 뒤에도 시누이와 시동생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하루에 3-4시간도 주무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먹을 것이 없어 소금을 한 주먹 입에 넣고 물을 마셔서 소금이 목구멍으로 서걱서걱 녹으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물을 마시고, 물베를 채우며 집안일, 산에서 나물을 뜯고, 보리 절구를 찧고, 밤에는 베틀로 베를 짜며, 온갖 일을 다 어머니 혼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으로 나물을 뜯으러 가셨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혼자 얼마를 누워 계셨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하루종일 굶어서 그렇게 되신 거라고 합니다.

바람이 코로 살살 불어 들어와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 나물을 뜯어가지고 집으로 오니 시아버지가 "어디서 놀다가 이제야 집으로 왔나?"고 하시며 회초리로 어머니를 마구 후려 갈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맞으면서, 굶으면서,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면서 집안일에 매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밤이 깊도록 베틀로 베를 짜고, 그 천으로 옷을 만들어 시누이, 시동생들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서야 부엌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으면 일어나 밥을 안쳐야 했습니다.

제가 2010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옛 촌을 구경하러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부엌을 구경하는데 마치 그 옛날 어머니께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신 자리인 것 같아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하시고, 또 술도 좋아하시니 며느리에게 술 가져오라고 회초리로 때려대며 집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술 없이 집으로 오면 외상으로라도 술을 가져오라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아무도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아서 사방을 헤매고 다니다 빈 손으로 집에 돌아오면 또 두드려 맞고는 했다고 합니다.

한 6년을 그리 살다 어머니께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4년이 지나 아버지께서 일본놈들에게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사할린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아들과의 시집살이는 말도 못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죽고 싶어도 아들을 남겨두고 차마 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아이는 두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날마다 나가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라도 데리고 가게 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할아버지는 아들은 데리고 갈 수 없다며 어머니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빨래하러 강가에 가면 이웃 아주머니들이 아무리 착하게 일을 많이 해도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알아줄 사람들이 아니니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두고 가라고 하여 못 간다고 하니 내년에 남편과 같이 오면 아들을 데리고 가기 쉬울 테니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일단 혼자라도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랜 생각 끝에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죽는다는 생각으로 집을 떠나 3일을 굶으며 배를 타고 사할린으로 왔다고 합니다. 사할린에 오셔서도 아들 생각에 한시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있다가 남편과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길이 영영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쓰라린 슬픔을 일로 달래셨습니다. 밥ნ릇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15-16살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길에 지나다니는 청년들을 가리키며 "조선에 있는 너희 오빠도 지금쯤 저 청년처럼 많이 컸을 텐데..."라며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명절 때에도 제가 다른 아줌마들과 같이 놀러가면 어머니께서는 "나는 안 갈란다, 놀러가면 내 아들 또래들이 보일 테고, 아들 생각이 자꾸 나서 아들이 눈 앞에 선해서 도저히 참기가 너무 힘들다. 나는 차라리 텃밭에서 일할 테니 너희들이나 잘 놀다 오너라."라고 하시며 한사코 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만 하셨으니 말입니다. 저희 집에는 일이 끝날 날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웃들은 봄이면 들로 나물을 뜯으러 가고, 여름이면 바다로 놀러 가고 했지만 저희는 텃밭에서, 산에서 일만 했습니다. 산을 일구어 밭을 만들고, 감자도 심고, 여러 채소도 심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사할린한인' 상설 전시관 열어

지난 12월 6일(금) 오후 5시 사할린주향토박물관에서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한인'이란 상설 전시관이 개막되었다. 이 전시관 개시는 사할린 주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개막식에는 사할린 주정부 및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대표, 주두마 및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회 의원들, 사할린한인사회계 대표, 주내 박물관 및 문서보관소기관 등 전문가, 사할린동포 등이 참석했다. 사할린 주정부 제1 행정부실장 블라디미르 예피파노브는 "오늘 우리는 사할린한인이란 상설 전시관을 엽니다. 우리 공동의 역사를 반영하는 이 전시는 사할린 주민, 그리고 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매력적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명절 같은 날입니다. 사할린 가족들에게 가장 빛나는 진주 중 하나가 향토박물관에서 가치 있는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블라디슬라브 예피파노브 사할린주정부 제1행정부실장이 강조했다.

'사할린한인'상설 전시관을 열기까지 사할린주 한인협회로부터 여러 번의 요청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날 개막식에서 발언한 박순옥 주한인협회장은 "사할린 한인들에게 이 전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역사적인 조국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의 뿌리, 언어, 전통을 보존하고 우리에게 안식처를 제공한 나라가 이제 우리의 집이 되게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언급했다.

"이 전시를 여는 것이 박물관, 사할린한인사회계, 그리고 사할린주에게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우리는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할린한인은 이미 디아스포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인들은 사할린 대가족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라고 사할린주향토 박물관 유리 알린 관장이 강조했다.

개막식에서는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가야금 연주, 한민족 무용과 북 공연이 축하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사할린한인'상설전시는 제1호 전시관에서 펼쳐졌는데, 1945년 이전 사할린한인 역사, 1945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에서의 생활 시기, 1991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사 - 세 단계로 구분하여 연대기적 원칙에 따라 구성되었다. 전시에는 89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었고, 박물관에는 사할린한인에 관한 소장물은 약 900점이다. 전시는 8부문으로 나



눠져 있다. 이날 첫 견학 안내를 '사할린한인'전시 큐레이터인 주향토박물관 학술편집부장 진 율리아 박사가 진행했다.

또한 전시관 개관의 일환으로 VR 안경과 오디오 장비 등 디지털기기를 통해 가상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사할린한인의 문화를 만나다' 전 러시아 해코틴(hackathon)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에 러시아 27개 지역에서 64팀이 참여한 가운데 '김치 만들기 기획'을 개발했다고 IT 기업 GS그룹 교육센터장 김 안톤이 전했다.

박물관 측에서는 새로운 전시관을 견학하고자 하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사할린에 종양 진단량, 5배로 늘릴 계획

최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개원된 핵의학센터에 현재까지 극동 지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현대식 양전자방출 컴퓨터 단층촬영 장치가 가동되고 있어 암 진단과 종양 치료에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암에 대한 진단 규모를 5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핵의학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의료장비

가 온전히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종양학 진료소의 세르게이 스타르조브 병원장은 주지사와의 대화에서 의료장비가 완전 가동되고 있으며, 모든 필요한 연구분석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단 3개월 만에 사할린 주민 140명이 PET/CT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할린에 이러한 의료장비가 생기기 전에 사할린 주민들은 종양 치료 내륙으로 가야 했다는 점은 주

목할 만하다. 따라서 매해 국가보조금으로 100명씩 검사를 받으려 하바롭스크로 떠났었다. 현재는 대단히 중요한 진단과 치료가 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의사로서 의료 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하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나는 개인적으로 진단 대기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대

기자 명단이 새로이 작성되는 것을 보았다. 이는 주민들이 의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 의료계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언제나 기본자세를 유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다음 해의 목표는 사할린에서 모든 수술이 다 이뤄져서 주민들이 어디론가 치료차 떠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할린주 보건부는 최근에 초기

종양 질환 발병 수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방향의 업무는 핵의학센터와 다른 대형 병원에서 다룰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와 응급진료소, 외래진료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거지들에 새로운 의료기관들이 건설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초기 종양을 59% 발견했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нкурс эссе к 75-лет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Моя мама - фея

3 место, Ким Марина, 52 года

В детстве, как и все девочки, я очень любила читать сказки про принцесс, королевы, волшебников, добрых фей. В детском возрасте, начитавшись сказок, нам кажется, что в нашей жизни тоже случаются чудеса. И люди, которые исполняют наши желания, - это настоящие волшебники. А для меня всегда доброй феей является моя мама, у которой есть волшебная палочка. Стоит ей взмахнуть, как исполняются желания, даже те, которые казались нереальными.

Я родилась в обычной семье. Папа работал монтажником, мама - бухгалтером. У нас был частный дом, а многие мои друзья жили в благоустроенных квартирах. Как я мечтала жить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м доме, где много соседей, удобства в квартире! (В мое время квартиры выдавали.)

Я постоянно об этом говорила маме, но она отвечала, что нам, так как мы живём в частном доме, квартира не положена, но при этом добавляла, что надо хотеть и верить в исполнение желания. И вот однажды папа пришел с работы и сказал, что распределяют две квартиры среди тех, кто долго проработал и еще не получил жилье. Оказалось, что только двое могут претендовать по этим критериям - мой папа и его товарищ. Но у нас частный дом, и мы не имеем право получить квартиру. Мама, долго не раз-

думывая,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вызвала бабушку, записала на неё дом и сразу выписалась. Нам дали квартиру. Моему счастью не было предела!

Через пять лет я заканчивала школу, готовилась к экзаменам, бегала на репетиции выпускного вечера. До выпускного оставалось совсем чуть-чуть, а у меня до сих пор не было платья! Все, что предлагала мама, мне не нравилось, и 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не идти на вечер. Как всегда, мама говорила: «Будет платье, которое понравится тебе, ты пойдешь на вечер, надо хотеть и верить.»

Буквально за два дня до выпускного мама пришла домой, протянула мне пакет и, улыбувшись, сказала: «Посмотри!». Я сразу заглянула в пакет, достала платье и ахнула, передо мной было нежно-голубое, как чистое небо, платье с золотой каймой по подолу, сбоку три золотистых небольших цветочка. Красиво, прекрасно и неповторяемо! Конечно, я сразу влюбилась в это платье, с диким восторгом померила его, и оно оказалось мне в пору!

Как мало нам для счастья надо! И такие прекрасные моменты в моей жизни случаются до сих пор, благодаря моей доброй фее - моей маме. Просто надо сильно хотеть, верить, ну и, конечно,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и все получит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открыт новый приход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В третьем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г. Инчхоне открыт новый приход Корейской епархии.

8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в новообразованном приходе архиепископ Корейский Феофан (Алексей Илларионович Ким, уроженец Сахалина - прим. редакции) совершил первую Божественную Литургию. Приход получил название в честь Всех Святых.

Богослужение посетили православные верующие, проживающие в г. Инчхоне и близлежащих городах Ансане, Кимпхо и Пучхоне, по просьбам которых был открыт приход. После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об открытии прихода силами прихожан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было найдено помещение для совершения богослужений, установлен временный иконостас, закуплена необходимая утварь. Помещени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лужб арендовано в русскоязычном квартале Инчхона, где проживает значительное число вы-



(Фото пресс-службы Корейской епархии)

ходцев из стран СНГ.

По окончании Литургии архипастырь произнес проповедь и поблагодарил всех за помощь в открытии и обустройстве нового прихода,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Корейской епархии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озере появилась гигантская новогодняя открытка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дети создали огромную новогоднюю открытку на льду озера. Кадрами создания праздничного шедевра поделился тренер по спортивному ориентированию ДДЮ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алерий Тен.

Создателями ледяного полотна ста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Дома детского и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могали им тренер Валерий Тен и родители. За два часа кропотливой работы получилась открытка размером 40 на 30 метров.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создание таких ледяных открыток стало для ребят уже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Первая появилась в 2020 году. Тогда, отмечают новогодние художники, было тяжелее, так как снега было по колено. Нынешняя зима пока еще не така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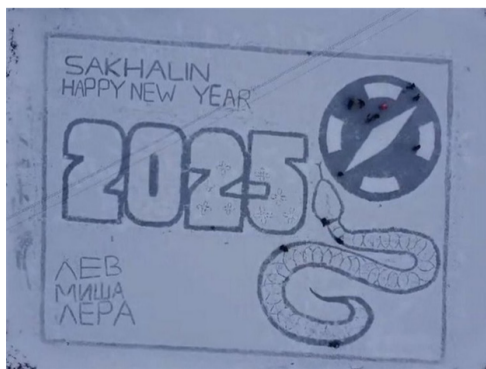


ФОТО: ВАЛЕРИЙ ТЕН

снежная. Однако снегопад все же помешал ребятам завершить картину, украсив ее узорами.

Постоянная экспози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ткрылась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6 дека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постоянной экспози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 открытие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путаты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пециалисты культурных, музейных и архив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общности.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открыли памятник Евгению Киму — легендарному советскому разведчику. Теперь мы открываем постоянную действующую экспозицию, посвященную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Я думаю, что и эти и, я надеюсь, многие будущие объекты, отражающие нашу совместную историю, станут точками притяжения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курильчан и гостей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Сегодня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ведь одна из самых ярких жемчужин в сахалинской семье получила достойное отражение своей истории в наше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 подчеркну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слав Епифанов.

Идея создания постоянной выставки в музее принадлежит представителю корейской общност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братилась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к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который поддержал эту инициативу.

Выступая на открыти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 Пак Сун Ок выразил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за поддержку.

-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эта выставка — дань памяти всем нашим родителям, которые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сумели все преодолеть, преодолеть и привить нам уважение к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Они сумели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мы сохранили свои корни, язык и традиции и сделали так, чтобы та страна, которая дала нам в свое время кров, стала для нас родной. Я хочу сказать всем спасибо за эту выставку, — отметила Пак Сун Ок.

-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 это большое событие не только для музея, оно важно и для корейской общности, и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кольку мы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храняем культуру и истор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обеих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На мой взгляд,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уже давно не является диаспорой, она очень серьезно и основательно интегрирована в нашу большую сахалинскую семью, — подчеркнул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рий Алин.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украсили выступления учеников ДШИ «Этнос», которые сыграли на каягуме, станцевали национальный танец и отбили ритмы на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ах.



После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открытия прошла первая экскурсия по новой экспозиции, которую провела куратор выставки Юлия Дин.

Экспозиция состоит из восьми комплексов, которые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появлении корейцев на острове в XIX —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ека, советском периоде в истории диаспоры и познакомят с их культурой и бытом современной эпохи.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о 89 экспонатов, а всего в коллекции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находится более 900 предметов по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амках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посетителям представили проект победител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хакатона "Прикоснись к культур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компанией GS Group в июне-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В нем участвовало более 60 команд из 27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 заданию хакатона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создавали интерактивное 3D/VR-приложение на российском ПО Varwin. Участникам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разработать сценарий по приговору одного из главных корейских блюд, ставшим символом страны — кимчи. Хакатон открыл участникам мир традиций, обычаев и ценн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ранее были им неизвестны. А также, объединил интересы государства, бизнеса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 Я считаю, очень важно транслировать свою историю и показывать, насколько это значимо для нас, — 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учебного центра IT-компании GS Group Антон Ким.

- Нам бы хотелось, чтобы посетители музея не просто рассматривали музейные предметы, но и смогли в том числ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приобщиться к каким-то особенностям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которая вызыва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посетителей. Все очень ответственно подошли к работе, создали интересные локации и поработали над дизайном, — отметила Юлия Дин, куратор экспози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а

О проведении собрания для планирующих выезд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2025 г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общает о проведении собрания для планирующих на ПМЖ в 2025 году.

Дата и время: 18.12.2024 15:00

Место: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ктовый зал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р. Мира, 83А)

Организаторы: Департамент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Р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Оппозиция предпримет вторую попытку импичмента президенту РК

Ведущ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планирует предпринять вторую попытку объявить импичмент президенту РК Юн Сок Ёлю. Как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партии Кан Ю Чжон, на совещани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направ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законопроект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12 декабря, а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импичменту провести 14 декабря. Если импичмент не будет утверждён, аналогичные законопроекты будут направляться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каждую неделю,- отметила Кан Ю Чжон. 7 декабря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импичменту не состоялось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кворума, поскольку парламентская фракция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отказалась в нём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езультате не удалось набр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голосования 2/3 голос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депутатов.

Принят закон о специальном постоянном прокуроре

10 декабря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утверждён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назнач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курора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обстоятельств объя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Документ, предложенны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ей Тобуро, поддержали 210 из 287 депутатов,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х на заседании. 63 голоса отдано против, 14 воздержались. В голосов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епутаты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инятым законом, специальный прокурор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расследование обстоятельств объя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попытки отстранить от вла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Объектом расследования являются также бывший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Ким Ён Хён как сообщник президента, руководители спецслужб и чл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ан Док Су. В отличие от обычн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 специальный прокурор,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президент не мож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авом вето, хотя он может отложить назначение прокурора.

В Сеуле прошёл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форум

9 декабря в Сеуле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бизнес-форум на тему «Расширен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опыта через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опутствующих отраслях».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в преддверии 60-летия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Токио, которое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инистр Ю Ин Чхон и его заместитель Чан Ми Ран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ситуацией в РК в связи с недавним объявлением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процедурой импичмента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Они заверили япон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 том, что иностранным туристам ничто не угрожает, и вс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работают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прилагает все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бывание каждо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гостя в РК было комфортным и безопасным», - подчеркнула Чан Ми Ран. Она призвала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80-летний австралиец встретился с племянниками в КНДР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80-летний житель Австралии, который одновременно является гражданином РК, посетил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где встретился с двумя племянниками. Это была первая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стреча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о которой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официально. Между тем, встречи, проходившие в третьих странах, могли остаться незафиксированными. Частные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организуемые с помощью посредников, были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на рубеже 1990-2000-х годов. Так, в 2003 году произошли 283 такие встречи. Затем их число постепенно сокращалось. В 2010 году было семь встреч, а в период с 2017 по 2019 год лишь одна. С 2010 года большинство встреч проходят в третьих странах. Последняя официальная встреча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совместно властями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состоялась в августе 2018 года.

Заболеемость гриппом растёт четвёртую неделю подряд

В РК четвёртую неделю подряд растёт заболеемость гриппом.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на последней неделе ноября на каждую тысячу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е обратились в 300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участвующих в программе мониторинга, приходилось 5,7 случая гриппа. На первой неделе ноябр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л 3,9. Как отмечают эксперты, страна пока не достигла стадии эпидемии, порог начала которой установлен на зимний период 2024-2025 годов на уровне 8,6 случая на тысячу пациентов. Тем не менее, медики не исключают, что он будет достигнут. В этой связи они рекомендуют всем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пройти вакцинацию.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анная рекомендация касается людей старше 65 лет, для которых вакцинация является бесплатной.

RKI

Прокуратура обвинила экс-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Кореи в сговоре с целью захвата власти

Прокурату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запросила ордер на арест экс-министра страны Ким Ён Хёна по обвинениям в сговор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н Сок Ёлем с целью незаконного захвата власт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последует запрос на арест собственно Юн Сок Ёля.

Во вторник, 10 декабр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пециальной следственной группы прокуратуры, ведущей расследование обстоятельств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стране, заявил, что после трех допросов они предъявили обвинения экс-министру обороны РК Ким Ён Хёну. Он обвиняется в сговоре с нескольким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ми госслужащими, включая президента, с целью незаконного захвата власти. Среди группы заговорщиков упомянуты лидер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ь, начальник штаба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К Пак Ан Су, командующий Силами спецопераций ВС РК Квак Чжон Гын, глава Командования контрразведки ВС РК Ё Ин Хён, начальник Командования обороны столицы Ли Чжин У,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ции РК Чо Чжи Хо и другие.

Экс-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Ким Ён Хён, по версии следователей, предложил президенту РК Юн Сок Ёлю ввести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оторое нарушало законы и Конституцию, после согласия последнего, дал указания своим подчиненным направить военных в Центризмбирком и парламент. Отмечено также, что действия полиции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в парламент, а также силовое проникновение спецназа в здание парламента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помешать выполнению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м органом своих законных функций. Хотя депутаты смогли в итоге открыть заседание и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отмену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в итоге Юн Сок Ёль дал указание отменить свое решение, но, как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в обвинении, н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было нарушено исполнение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страны.

Ким Ён Хён сразу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инцидента с введением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был назван как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главный инициатор данного решения, который сумел убедить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анного шага президента. После трех допросов, где Ким был в статусе подозреваемого, последовал запрос на его арест. Стоит упомянуть, что экс-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связывают тесные, давние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Они являются выпускниками одной и той же престижной школы высшей ступени (аналог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Чхунам, но Ким закончил ее на год раньше, чем Юн. В Корею же связи по общему месту учебы (школе и вузу), месту рождения и службе в армии считаются одними из самых тесных и долговечных, помимо собственно родственных уз. Как правило, выходцы из одних и тех же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земляки и те, кто служили вместе в армии, поддерживают и помогают друг другу. После прихода Юн Сок Ёля к власти Ким Ён Хён долгое время был главой Службы личной охраны президента, а затем был назначен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

ны. Также ходили устойчивые слухи, что Юн часто неформально и по-дружески общается с Кимом.

После эпопеи с введением и провалом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запрос прокуратурой ордера на арест экс-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РК был достаточно ожидаем. Главный вопрос теперь - что ждет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ый также имеет статус подозреваемого. Сегодня Юн стал первым в истории РК действующим президентом, кому запретили покидать пределы государства. Теперь же все идет к тому, что и ему будут предъявлены официальные обвинения и запрошен ордер на арест. Это тоже станет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случаем.

Эксперты по праву обсуждают ситуацию, что произойдет в случае получения ордера на арест президента, а это, пожалуй, является лишь вопросом времени. Как отмечают некоторые правоведы, в принципе арестовать действую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можно, но проблемы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если он откажется подчиниться. Парламент не смог набрать достаточно голос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импичмента, а потому Юн Сок Ёль технически продолжает оставаться верховным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им, кроме того, его обязана защищать Служба охраны президента. В этой связи он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и полномочия, силы и отказаться подчиниться. Если же Юна арестуют, то может возникнуть ситуация, что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управляет страной, находясь в тюрьме.

Напомним, что в ночь с 3 на 4 декабря достаточно неожиданно для всех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заявил о введении в стране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этом была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а наличием в парламенте анти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ил, которые мешают исполнению функций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ом. Несмотря на попытки закрыть доступ полицией в парламент и направление туда спецназа, депутаты РК смогли набрать кворум и принял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оторое призвало президента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тменить. Согласно конституции РК, лидер страны обязан подчиниться данному призыву. Юн Сок Ёль в итоге так и поступил, хотя и раздумывал более трех часов. В итоге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в РК продлилось лишь около шести часов, вызвав бурю негодования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Однако из-за отказа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голосовать 7 декабря парламенту не хватило шести голос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объявления Юн Сок Ёлю импичмента. Тем не менее, затем, после совещания с Юном, лидер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Хан Дон Хун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ан Док Су заверили, что президент в итоге досрочно покинет пост, а все будет произведено в рамках "упорядоченного отхода от власти". Однако данный подход ряд экспертов посчитал нарушающим многие законы, а потому будущее развитие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Южной Корею вызывает вопросы и может пойти в неожи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Нобелевская премия по литературе вручена писательнице Хан Ган

10 декабря король Швеции Карл XVI Густав вручил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 Хан Ган медаль и диплом,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присуждение ей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по литературе 2024 года. Как отмечено в решении Нобелевского комитета, Хан Ган удостоена награды за «насыщенную поэтическую прозу, которая противостоит историческим травмам и обнажает хрупкость человеческой жизни». Ежегодно 10 декабря, в день памяти Альфреда Нобеля, в Стокгольме проходят торжественные церемонии вручения премий по медицине, физике, химии, литературе и экономике.



Размер денежной премии для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составил в этом году 11 млн шведских крон (около 1 млн долларов). Хан Ган стала 18-й женщиной-лауреатом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по литературе и первой корейкой, прошедшей по «синей ковровой дорожке», символизирующей Нобелевскую премию. В 2000 году тогдашний президент РК Ким Дэ Чжун был удостоен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мира.

KBS World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утвердило бюджет на 2025 год

10 декабр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утвердило бюджет страны на 2025 год в размере 673 трлн 300 млрд вон (471,5 млрд долларов). За утверждение бюджетного законопроекта проголосовали 183 из 278 депутатов,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х на заседании. 94 депутата голосовали против и один воздержался. Размер бюджета будущего года на 4 трлн 100 млрд вон меньше предлож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существенно сократила резервный фонд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пециальные расход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куратуры, полиции, комитета по аудиту и инспекциям. Сокращён также бюджет на выплаты процентов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облигациям. Кроме того, сокращены расходы на проведение геологической разведки нефтян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Бюджет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не был согласован политическими партиями впервые в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й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президент не может наложить вето на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бюджете. Сокращение на 4 трлн 100 млрд вон составляет лишь 0,6% бюджета, поэтому нет никаких оснований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будет нанесён ущерб.

KBS World

В День героев Отече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наградили волонтеров, оказывающих помощь участникам спецоперации

9 декабря в День героев Отече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чествовали волонтеров, оказывающих помощь воинам СВО. Участнико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движения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За наш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етеранов «Боевое братство» и разных добровольческих групп отметили медалям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фронту».

Высокие награды вруч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Сегодня вся страна отмечает День героев Отечества. Любую веху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мы олицетворяем с личностями, которые вели за собой народ и отстаивали нашу землю, защищая суверенитет и традиционные ценности. Сегодня многие такие герои находятся среди нас.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участники локальных конфликтов и контр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операций. Конечно же, это ребята, которые участвуют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ни продолжают славные традиции предков-героев, помогая нашей Родине обеспечивать сво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росты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егодня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ших воинов, отправляя на фронт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Вы – современные труженики тыла, ваш труд достоин признания,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За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достижение целей спецоперации были отмечены 13 волонтеров. В числе награжденных – матери погибших и действующ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алентина Забузова, Мария Пасикунова, Оксана Спирина, Анжелла Платонова. Женщины иницируют добровольческие акции и сборы,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семьям бойцов. Награду получила и 85-летняя труженица тыл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оза Вахитова. Она успевает нянчить праправнуков и участвовать в таких акциях, как «Домашние обеды для Победы», «Посылка защитнику Отечества», «Подари тепло бойцу».

— До сих пор помню, как мама держала меня на руках и сказала: «Доченька, сегодня война началась». Мне тогда двух лет не было. Папа воевал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домой вернулся. А внук мой погиб на спецоперации. Хоть я и хожу с трудом, но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омогаю нашим парням, чем могу: носочки вяжу, вкусняшки пеку, деньги отправляю. Это же наша страна! Мы должны ее поддерживать, чтобы скорее наши ребята победили! – уверена Роза Вахитовна.

Наград были удостоены руководитель движения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За наших» Закия Валитова, неоднократно выезжавшая в зону спецоперации с гуманитарными миссиями, труженица тыла Зулайха Кутдусова, соткавшая своими руками километры маскировочных сетей, инициатор проведения концертов для бойцов в зоне СВО Юрий Мусаленко, а также активные волонтеры – руководитель движения «Надежный тыл Томари» Елена Дубровская, доброволец из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Маргарита Караман,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диабетиче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Наталья Утарас,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Боевое братство» Сергей Цыбаков и член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Альберт Халатя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о реформах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череди в сахалинских больницах постепенно уходят в прошлое.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к узкому специалисту жители региона смогут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а к терапевту – за 2-3 дня. Об этом во время прямой линии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в, что в регионе успешно внедрены реформы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оторые делают доступнее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Как уточнил глава области,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ы жителей,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медпомощи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здрав начал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частными клиниками.

— Когда я шел на выборы, давал обещание избирателям, что медицина станет доступной. Мы поставили крайне амбициозную задачу, и фактически реформа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которую мы проводили в течение года, завершается позитивно. Мы приняли принципиальное решение — включить в маршрутизацию пациентов частные клиники. Теперь частная медицина интегрирована в систему записи через 1-300. По закону ожидание приема узк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должно составлять не более 14 дней, а терапевта – не более 2-3 дней. Если этот срок не выполн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больницами, людей перенаправляют в частные клиники. наших людей по полису ОМС уже обслуживают клиники РЖД и Медскан, в эту работу включены еще 20 част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меньшего размера, которые разбросаны по город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чество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в них не хуже, а где-то и лучше. Сегодня каждый день лист ожидания закрывается практически в ноль. Остается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кто-то хочет попасть к конкретному врачу, кому-то в силу обстоятельств необходимо, к примеру, сдать анализы в более поздний период,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ледующим амбициозной задачей станет повы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в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помощи.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именно для этих целей в столице остров-

ного региона начала работу передовая клиника Медскан.

— Эта компания с 50% участием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ее базе мы формируем медицинский кластер, чтобы люди могли бесплатно обслуживаться по полису ОМС. Мы хотим привезти на Сахалин лучших врачей из Москвы, чтобы у нас проводилис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операции, а нашим людям не приходилось выезжать на лечение за предел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билитация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здесь же, потому что в регионе хорошие мощности по реабилитации, – доб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Параллельно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врачей и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в региональные больниц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комплектованность медика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вышает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й уровень.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билась создания филиала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де готовят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кадр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акже возводятся новые медучреждения. На этой неделе современная поликлиника начала работу в селе Дальнем. В 2025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ланировано открытие еще 5 новых поликлиник. А в 2026 году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больницы в Макарове.

Около 140 тысяч пассажиров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пригородными поездам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вел итоги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как городской транспорт» и наградил работников отрасли.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на пригородных маршрутах вырос почти на 50 процент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Люди оценили удобство перемещения на рельсовых автобусах как на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месте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РЖД» встретились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танции Христофоровка и на рельсовом автобусе отправились до вокзала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Путь в комфортном вагоне занимает около 15 минут, в то время как на авто, в час пик, временные затраты могут вырасти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с 2022 года реализуется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проект, который сделал железную дорогу важной частью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ригородные поезда позволяют с комфортом и без пробок перемещаться в границ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 Все делае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острова было удобн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Важным шагом стала интеграция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в систему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У нас появились транспортно-пересадочные узлы, новые инженерные решения – к примеру, недавно открыл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развязки,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увеличилась интенсивность движения. Транспортная реформа влечет за собой изменение всей системы обслуживания пассажиров. Все больше людей пересаживается на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Это позволяет разгрузить основные дорожные артерии в городе и улучшить эколог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Впереди – создание развязок и другие проекты. Это в будущем. А сейчас хочу сказать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работникам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Уверен, что с такими ответственными и высококласс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мы сможем еще многое сделать для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а проделана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озданы транспортно-пересадочные узлы (ТПУ): «Алые розы» в Дальнем, «Нова»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Привокзальный» и «Университет»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Большая Елань» и «Горизонт» в южной части города. Расположение выбирали так, чтобы пассажиры могли быстро преодолевать большие расстояния и бесплатно пересаживаться с поезда на автобус.

Обновили подвижной состав – закупили восемь вагонов для пригородного сообщения и столько же – для дальнего следования. Построили транспортно-пересадочные узлы и совмещенные остановочные пункты, синхронизировали движение поездов с автобусным сообщением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Запустили шесть новых пригородных маршрутов на участке от Долинска до Корсакова.

Ввели два новых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разъезда в районе Лугового и Большой Елани. Теперь в будни транспорт от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вокза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урсирует каждые 35 минут.

— Эта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была бы невозможна, если бы мы не делали ее вмест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и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и работников отрасли, которые своими руками обеспечивают развити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короткий срок мы смогли запустить два остановочных пункта с возможностью скрещения поездов.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и работали в ударном темпе, чтобы закончить в срок значительный объем работ,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ОАО «РЖД» Иван Колесников.

В 2025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ТПУ «Роза Таун», а также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совмещенные остановочные пункты «Сити Молл» и «Заводской», открыть остановочные пункты «Технопарк», «Агролицей» и совмещенный остановочный пункт «Аэропорт».

— Изначально проект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казался амбициозным и далеким. Но благодаря совместным усилиям и вашему упорству,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подсказкам вашей команды и нашим коллегам-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ам, которые трудились с полной отдачей, проект удался. Было много помех, в том числе непредсказуемая погода, но мы получили самое ценное. Это наши компетенции решать трудные задачи в очень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Задач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вышение комфорта жизни в городе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для гостей. И лучший показатель работы – это рост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Уверен, что люди и дальше будут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льзоваться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а мы будем решать сложнейшую задачу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в город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 добавил начальни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Евгений Вейде.

Отметим, на совещани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наградили лучших работников отрасл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ОАО «РЖД» Иван Колесников. Шесть человек поощр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губернатора. Звания «Почетный работни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был удостоен монтер пути Сахалинской дистанц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ртур Харитонов.

Новая поликлиника в селе Дальнее начала принимать первых пациентов

Современная поликлиника появилась в селе Дальнее.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почти трем тысячам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раньше обращались в маленькую местную амбулаторию или ездили в городские поликлиники. В одну смену здесь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до 120 посещений. С радостным событием жителей поздрав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егодня мы открыли новую поликлинику в Дальнем. Я побеседовал с нашими пациентами. Они довольны. Качество обслуживания высокое.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получили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с хорошим качеством. Условия труда заметно улучшились, потому что некоторые работали в первой поликлинике, которая была расположена в аварийном здании. Мы направили людей лечиться и работать в разные корпуса Централь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Один из них запущен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И вот сдали еще объект с нов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посетители довольны, и довольны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Это хорошая новость в канун нового год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овременном трехэтажном здании поликлиники будут обслуживать до 120 пациентов в смену.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расположились рентген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с флюорографией, кабинет УЗИ, клинич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ая лаборатория, кабинеты приема врачей, а также доврачебной и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На последнем — палаты днев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стационар на 8 коек, куда смогут приходить пациент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и лечебных процедур.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общался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которые переехали в современное здание, из первой поликлиники. Сейчас у врачей просторные кабинеты и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 Мне очень удобно, что меня перевели сюда. Раньше я работала в первой поликлинике. Я живу в Дальнем и теперь не приходится ездить каждый день в город. В зарплате я ничуть не потеряла. Но условия стали труда намного лучше, здесь комфортно работать и принимать пациентов, – поделилась бывший работник первой поликлиники, фельдшер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появлению новой поликлиники очень рады. В новом медучреждении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необходимых услуг.

— Да, я живу в Дальнем три года. Раньше приходилось посещать старую амбулаторию. А сейчас эмоции переполняют, потому что сегодня записалась на прием и попала сразу в новую поликлинику. Очень приятно. Очень хорошие врачи. Сразу же сдала кровь. Хочу сказать про своего лечащего врача, он превосходный доктор. Очень всё прекрасно.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что нам сделали такую поликлинику, открыли,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Ольга Фролова,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Дальнее.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штат медучреждения уже полностью укомплектован — помощь жителям Дальнего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16 врачей: терапевты, офтальмолог, отоларинголог, невролог, хирург, уролог, гинеколог, стоматолог.

— В корпусе номер один будет открыто два физиокабинета, здесь наши пациенты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магнитотерапию, дарсонвализацию и ультразвук. Люди очень долго ждали открытия. Сейчас, конечно им станет проще посещать поликлинику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чем ходить или ездить куда-то в город, это намного удобнее, тем более в зимнее время, – добавила Ольга Секреян, старшая медсестра физиотерапевт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Отметим, медучреждение площадью около 4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озведен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Средства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ены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селе появится и дет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же ведётся, работы будут окончены в 2025 год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 국내 동포도 본격 챙긴다

곽재석 소장, "국내 동포 대상 F4, H2 비자 '일원화' 해야" 주요 선진국 출신에겐 전문사무직 종사 가능한 F4 발급

김용필 대표, "동포사회를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한 언론 문제" 인구소멸 노동력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 이미지 부각해야

지난해 기준 재외동포는 전 세계 181개국에 약 708만 명이다. 이중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 10월 말 기준 86만 3677명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9만2359명인데 이 중 32.1%가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셈이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1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본지는 이날 주요 인사들의 발제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곽재석 이주동포연구소장은 이날 "현재 F4와 H2로 이원화된 국내 거주 재외동포 대상의 비자 제도는 조속히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며 "1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은 이처럼 이원화된 비자 체계로 인해 취업과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비자 제도는 무려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F4 비자는 전문 사무직, H2는 단기 방문 취업을 위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 비자별 구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취업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단순노무직과 전문사무직을 오가면서 종사하는 동포들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곽 소장은 특히 "주로 선진 주요국 출신의 동포들에겐 F4비자를 발급하고, 중국 조선족 등엔 대 부분 H2 비자를 발급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는 주로 H2비자를 발급받아온 중국 조선족 등 비(非)선진국 출신의 재외동포들에게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거주 동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동포(조선족)나 구 소련의 이주 동포 등은 주로 H2비자를 받은 경우다. 이들은 대부분 거주가 아닌 (일시적) 定住(정주) 개념에 가깝다. 정부가 인정한 단순 노무직, 즉 식당이나 공사장 등이 이들의 일터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을 대부분 맡아하고 있다. 그나마도 H2 비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대략 3년이면 다시 출국했다가 복잡한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들어올 수 있다.

곽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감소, 청년을 비롯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재외동포와 유학생 등을 적극 고용시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동포'의 프레임에서 접근하던 시대를 벗어나, 노동시장의 수급 차원으로 국내 거주 재외동포 정책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F4와 H2 비자의 일원화다. 곽 소장은 "나아가 선 우리 사회의 통합이란 차원에서 두 개로 나뉘어진 비자 제도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뜻한 모국이나, 차가운 모국이나

김용필 세계동포신문 대표는 제2세션에서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전환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들은 현지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들이 정착 조국에 들어오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이 재외동포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출신들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재외동포는 대략 708만 명. 이 가운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국내 동포가 약 100만 명으로 재외동포 전체의 10%가 넘는다. 중국동포들이 절대 다수다. 이들을 국내에서 배제하기보다는 한국의 자산으로 활



12월 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재외동포청 주최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한 학술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재외동포청이 12월6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개최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한 학술포럼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해야 한다는 취지가 이번 포럼의 핵심이다.

김 대표는 "해외에서 살다가 모국으로 온 동포들에게 따뜻한 모국이나, 아니면 차가운 모국이나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내 동포들이 노동력 제공을 통해 지역소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동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로 이주한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현지국가는 물론 국내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상권을 만들고 나후된 지역에 활기를 띠게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않은 기여를 했으나 이런 공로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사람들에게 의한 혐오발언이나 사회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미디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동포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 항일독립군의 후예라며 중국 동포를 만난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그러나 2000년대에는 불법체류자로, 2010년대에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모국에서 불법으로 돈을 뜯어가는 '중국동포'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하물며 개그콘서트에서도 중국 동포 사회를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중국동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는 일부 세력에 의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강보험료와 부동산 매입 등도 마찬가지. 이에 그는 국내동포 인식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고려인 동포의 경우, 어른이나 아이 모두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학교에서 한국어로 교육을 하다 보니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화를 못하는 경우 주말학교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디어를 활용해 동포들의 긍정적인 활동상을 꾸준히 어필 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 동포와 지역주민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 한글학교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학위과정 지원

7개 사이버대학교 편입학 후 2년간 학습...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가능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재외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글학교 교사들의 국내 사이버대학 한국어 교육 관련 학위과정 수강을 지원한다.

동포청이 시행하는 '한글학교 교사 학위과정 지원사업'(2019년부터 시행)은 재외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국내 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 관련 학위과정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여 학위와 한국어교원 자격(2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내년도(2025년) 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한글학교 교사는 2024년 12월 초 ~ 2025년 1월 초 기간 중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이버대학교(7개*)에 입학지원서(3학년 편입)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7개 협력 대학 :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대학별 원서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대학별 입학사이트의 모집요강을 확인하

여 기간 내 입학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동포청은 대학별 합격자 중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여 2월말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사들은 등록금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고, 향후 2년간 온라인으로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한국어 교육론 등 수업을 듣고 학위를 수여 받게 되며, 필수과목 수강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어교원 자격(2급) 취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oka.go.kr) 및 스테디코리아(study.korean.net)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덕 청장은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은 재외동포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정체성 교육에 있어 한글학교와 한글학교 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청은 온라인 학위과정 등 지원을 통해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K-FOOD, 지금이야말로 "배 띄울때"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월드옥타와 MOU체결월드옥타 네트워크 통해 식품수출 활성화 앞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9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종범)와 '한식 세계화 및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어업위는 대한민국 농수산물품 수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한국 농수산물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전 수립 ▲한국 농수산물품 수출 판로 확대 ▲식품 수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월드옥타가 보유한 세계 각지의 한인 네트워크는 최고의 K-푸드 홍보 채널이자 국가적 자산이다"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식품의 세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월드옥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우수 농수산물품이 세계 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회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K-푸드의 세계화를 이끄는 데 선봉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MOU는 장태평 위원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월드옥타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한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4 KOREA BUSINESS EXPO VIENN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뉴스가 대서특필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월드옥타와 '한식 세계화 및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 박철의 재외동포신문 대표)

면서 평소 K-Food 수출에 관심이 많았던 장 위원장이 박종범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K-Pop, K-drama, K-Culture 등 한류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K-Food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 지금이야말로 "배를 띄워야 할 때"라는데 두 사람의 합의가 모아졌다.

박종범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수출계약 실적 2400억원 가운데 60%인 1400억원 가량을 식품이 차지했다"며 "월드옥타 2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수출전략을 모색,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 150개 지회에 4만여 명 이상의 재외동포 CEO와 차세대 경제인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다. 1981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43년 동안 한국의 중소기업제품을 해외에 내다파는 수출 역군으로서 글로벌시장에서 한국경제영토 확장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каждом вагоне царил праздничная атмосфера. Детей радовали сказочные персонажи, ребягтя участвовала в конкурсах,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шоу мыльных пузырей и много других активностей. Все это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веселой музыкой. А по прибытию в Корсаков детвору ждал праздничный обед.

И, конечно же, по традиции Дед Мороз вручил юным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140 новогодних подарков.

Сахалин의 우수 대학생들에게 개별상 수여

Сахалин주 두마가 제정한 <특별한 성과>상이 주내 교육기관의 대면 수업의 대학생들에게 수여된다고 지역 의회가 전했다.

인명에 따른 상은 각 학생들의 높은 개별적인 교육적 성과 및 학술연구와 창작 활동, 사회생활에 적극적인 참가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매해 6개 이하 부문의 상이 수여되는 가운데 3개 부문은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들에게 10만 루블리, 7만5천 루블리, 5만 루블리의 상금이 수여되고, 남은 3개 부문은 직업교육기관의 대학생들에게 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 후보는 경연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심사는 위원장, 간사를 비롯해 위원회 4명의 위원이 하게 된다.

이후 сахалин 주두마 경연조직위원회의 추천으로 최우수 대학생에게 수여하는 <특별한 성과> 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인명에 따른 상은 1월25일 러시아 대학생의 날에 즈음하여 전 학기 성과에 따라 수여하는데 대학생은 1회만 상을 받을 수 있다.

Лучшим студентам Сахалина будут вручать именные премии

Именные прем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За особые успехи" будут присуждать островным студентам очной формы обучен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Именная премия учреждается в целях поощрения за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достижени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твор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Ежегодно будет присуждаться не более шести именных премий: три — студента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азмере 100, 75 и 50 тысяч рублей, и три — студента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тех же размерах. Кандидатов будет отбирать комиссия на конкурсной основе. В ее состав войдут председатель, секретарь, а также четыре члена комиссии.

Далее на основании рекомендаций конкурсной комиссии Сове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е о награждении именными стипендиями "За особые успехи" лучших студентов.

Именная премия будет присуждаться по итогам учебного года и ко Дню 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тва (25 января). Получить премию студент сможет только один раз.

Сахалин 겨울철 '고르니 워즈두흐' 스키관광단지 개장

12월 9일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고르니 워즈두흐'산악스키장이 본격적으로 겨울철 스키장을 개장했다고 스키장 측이 전했다.

'서쪽 하부'와 '서쪽 상부'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가운데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운행된다. 양호한 날씨가 지속되는 관계로 주말에는 '서쪽 하부'와 '남쪽' 케이블카 노선도 개장될 예정이다.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крыл зимний сезон

9 декабря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Горный воздух"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ерешел на полноценный зимний режим работ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курор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ежим работы канатных дорог «Запад низ» и «Запад верх»: понедельник-пятница 9:00–21:00, суббота 9:00–22:00 и воскресенье 9:00–21:00. В

связи с наступлением благоприятной погоды, на выходных также могут открыться трассы трассы «Запад низ» и «Юг».

<사할린 성탄이야기 낭독> 사할린에서 진행

12월 6일(금) '위대한 승리 80주년: 세대의 기억과 영적 경험'을 주제로 전통적인 '사할린 성탄이야기 낭독회'가 종료되었다고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테와 장관이 전했다. 낭독회의 일환으로 <영웅들을 가르치자> 주일학교의 교사들을 위한 방법론적 세미나, 주내 독서 일기대회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눈에 비친 전쟁> 문학의 시간, 지역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 <정교회 문화의 기초> 프로그램과정에 따른 주내 방법론 개발 경연 대면 참가 등 한 주일 동안 많은 유익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이완 세르게예위츠 슈멜료브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학생 연극 <주님의 여름> 공연으로 마무리되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и «Сахалинские Рождественск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чтения»

6 дека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дошли к концу традицион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Рождественск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чтения», посвященные 'в этом году 80-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память и духовный опыт поколени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течении недели в рамках Чтений прошло множество насыщ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метод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для учителей воскресных школ «Воспитываем героев», литературный час «Война глазами детей»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читательских дневников, семинар для педагогов региона и очный этап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метод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по модулю «Основы православной культуры». Заверши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премьерой школьной театральной постановки по мотивам романа Ивана Сергеевича Шмелёва «Лето Господн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